

# ‘Refo 500’의 총 책임자 셀더하위스와의 인터뷰

인터뷰 셀더하위스 교수 \ 인터뷰어 곽우정, 이충광 \ 통번역 김화평

셀더하위스 교수는 현재 네덜란드의 아펠도우른 신학대학교 (Theological University of Apeldoorn)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세계칼빈주의학회 회장이자 ‘Refo500’의 총 책임자이다. 셀더하위스 교수님의 저서 중 한국어로 번역된 도서로는 『칼빈 핸드북』(부흥과개혁사)와 『중심에 계신 하나님: 칼빈의 시편 신학』(대한기독교서회), 『루터: 루터를 말하다』(세움북스) 등이 있다.

## 곽우정: 한국에는 어떤 이유로 방문하셨나요?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신대학교에서 진행된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Refo500’이란 단체의 한국 파트너들과의 회의도 가졌습니다.

## 곽우정: ‘Refo 500’의 총책임자로 계시고, 한국에서 Refo 500 회의도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지난 2009년, 네덜란드 안에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재직하던 Apeldoorn 신학교와 Dordrecht 교회, 정부, 미디어매체 등이 연합하여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



시회는 칼라(Karla ApperlooBoersma)여사가 디자인하였는데, 당시 약 10만명의 방문자들이 방문할 정도로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비크리스찬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칼빈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였을까?’를 궁금해 하며 성경 책을 구입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이런 전 사회가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칼라 여사는 8년 뒤에 있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며 ‘Refo 500’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이 계획을 세계에 알렸고, 이 때부터 이 단체는 국제기구가 되어 지금까지 150개의 파트너와 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핵심 목표는 종교개혁이 오늘 날을 사는 현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곽우정: 루터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루터의 이야기로 떠들석합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메세지는 무엇일까요?**

루터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의 변혁도, 자연과학의 개혁도, 유럽 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변화도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루터의 목표는 교회의 변혁에 있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루터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고, 교회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고뇌에 빠졌어요. 다시 말해 루터는 개혁을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그저 개혁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터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마치 평균점수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하면 몇 점을 얻고, 못하면 몇 점이 깎이는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를 행하셨고, 그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닫죠.

이 과분한 은혜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루터 개혁의 메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오셨다는 것이요.

**곽우정: 루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봉사하기 보다는 ‘기쁨 없는 열심과 의지로’ 교회 일을 해내려 하지는 않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그리고 행위가 뒤 따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 꽃을 삽니다. 꽃을 사는 행위는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꽃을 주는 착한 행위가 없으면 의문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그래서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됩니다.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새롭게 고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삶이죠.

오늘(11월 8일) 총신대 채플에서 부른 찬양 311장(내 너를 위하여)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후렴구에서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가사가 성경적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인가요? 성경은 나를 위하듯 남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주



였으니, 너도 나를 위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충광: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도 불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섬기는 자리이고, 시간이 끝나면 은퇴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다면 이것은 카톨릭교회가 했던 일들입니다. 후계자를 정하는 일들이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낮설게 느낍니다.

루터는 사람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만인제사장이다. 하지만 모두가 설교할 수 없으니 역할을 나눈 것 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마치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우정: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개신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니다. 유럽인으로서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영적인 삶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욕심, 권력, 유혹들 말입니다. 유럽에서 자유와 경제가 나아지면서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해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개혁시대의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로 부를 축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롤모델이에요.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도 타락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가르침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곽우정: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 젊은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젊은 세대의 공백현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신실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말씀과 좋은 가르침(교리교육)이 없습니다. 먹이를 주면 닭이 모여듭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닭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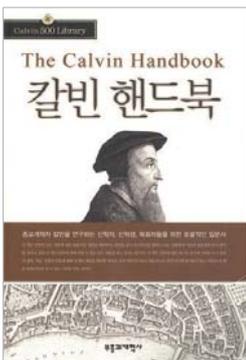
하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젊은이들은 말씀이 없는 교회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왜 오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곽우정: 루터는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에 대해 비판적인 도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말을 인용한 히틀러가 유대인 핍박에 정당성을 갖고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루터의 편에서는 실수한 일입니다. 유대인을 내보내 게토화 시키고, 그들의 회당과 책들을 불태우라고 한 것은 히틀러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루터의 행동이 나치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루터가 왜 그랬는지 설명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반응하리라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루터는 유대인들에게 실망했죠. 역사적 상황도 반유대주의 경향이 손쉽게 받아들여질 때였습니다. 에라스무스도 유대인들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루터는 언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면 좋지만 유대인에 있어서는 반대였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경건한 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 루터를 말하다』 / 헤르만 J. 셀더하우스 / 세움북스



『칼빈 핸드북』 / 헤르만 J. 셀더하우스 / 부흥과 개혁사



『중심에 계신 하나님』 / 헤르만 J. 셀더하우스 / 대한기독교서회

**이충광: 유럽에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지금 유럽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회는 변했고, 사회 안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려면이전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과 같이 근본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목사로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독교에는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곽우정: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하고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선한 것들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쁜 시간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